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중진 의 패도난마(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사랑했나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50 김부장의 경제특급	25 아침이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 다큐멘터리 <동의보감 및 기행>	30 아침연속극 <나라사랑>
9 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아 사랑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30 SBS 뉴스
10 40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세상	50 지구촌 뉴스		
11 50 채널 A 뉴스	00 교실이야기 55 버림받은 고구마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2012 글로벌 다큐멘터리 <미려를 보다>(재)	00 주말연속극 <아들내식들>(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10 여행이 좋다(재) 40 박명수의 돈의 맛(재)	00 KBS 뉴스 12	50 퀴즈쇼 사총사(재)	00 MBC 정오뉴스 20 자원봉사활동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1 50 박성규의 대선스타일 <영광의 재인>(재)	00 KBS 걸작선 <영광의 재인>(재)	50 비타민(재)	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30 맛있는 아시아 푸드런터(재)
2 50 이연경의 세상만사	00 KBS 뉴스 10 근로자 문화예술 대상		00 MBC 2시 뉴스 10 고향을 부탁해(재)	10 세네모드(재)
3 50 이연경의 대선만사	40 아름다운 사람들 스페셜	0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재) 30 KBS 뉴스타임 35 공부 공룡수호대(재)	10 KBS 3시 경제뉴스 10 MBC 2시 뉴스 <여기가 어디야 베스트>	10 세상발견 유레카
4 50 박중진 의 패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모자이크-정원>	00 파워 마스코(재) 30 TV유치원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인생 토로비	00 안녕 자두야2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KBS 뉴스 5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두리둥실 세계공방 15 뽀뽀아 놀자 30 칭/진/기	00 MBC 5시 뉴스 10 공감 특별한 세상	00 SBS 뉴스 퍼레이드 20 감성여행 간이역스페셜 50 2012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삼성>SK
6 00 스포츠 베토벤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MBC 이브닝 뉴스 50 생방송 전국시대	
7 30 관촬 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30 스카우트	45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	45 일일시트콤 <엄마가 뭐예요>	
8 40 이영돈 PD의 막걸리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0 오감만족 세상은 맛있다 50 비타민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이 웃살아> 55 MBC 뉴스데스크	
9 50 뉴스A	00 KBS 뉴스9		55 MBC 기획특집드라마 <뫼니안 승변>	30 SBS 8 뉴스 55 KBC 8 뉴스
10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15 SBS 대기행 <대풍수>
11 00 분노왕	00 2012 대선 정국정책연설 <새누리당> 2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20 추적 60분	10 황금어장	35 짝
12 10 박중진 의 패도난마(재) ①:20 판권 포털전 2012	25 KBS 뉴스 40 클래식 오디세이 ①:30 KBS 걸작다큐멘터리 푸른자유의 마지막 유산 공고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세상의 모든 다큐 ①:30 스타 인터뷰 카리 ①:40 행복한시간, 숨	30 MBC 뉴스 24 50 자원봉사활동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라인 ①:00 2012 광주비엔날레 특집다큐 아트랜드2

19세 진세연, 안방극장 셋별로 떠올라

'내 딸 꽃님이', '각시탈', '다섯손가락' 연속 주연



만 열아홉살 중앙대 공연영상창작학부 연극전공 새내기. 진세연(본명 김윤정)이다. 그런 그가 최근 1년간 잇달아 세 편의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을 맡으면서 안방극장의 셋별로 떠올랐다. "신인인데 주연 3개를 연달아 하게 된 거잖아요. 저를 믿고 써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드릴 점도 많습니니다."

2010년 SBS '랜잡아, 아빠'로 처음 안방극장 문을 두드린 이 '투키'는 MBC '짝패'에서 한지혜의 아역을 연기하며 주목받은 데 이어 최근 1년간 SBS '내 딸 꽃님이', KBS '각시탈', SBS '다섯손가락'에 이르기까지 세 작품 연속해서 여주인공을 맡아내는 행운을 누렸다.

"이번에 '다섯손가락'이 끝나면 몇 달 쉬려고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게 와 닿을 것 같아요. 1년을 되돌아보면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으니 생각해볼게 될 것 같고요."

캠퍼스 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숨 가쁜 촬영 일정으로 올 2학기를 휴학했다는 그는 "제 이미지가 캐릭터에 딱 맞았던 것 같다"며 "신인이고 어리니까, 신선한 느낌이 나는 사람을 감독님이 찾으셨나 보다"라며 "균질한" 작품에 연이어 캐스팅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중학교 3학년 때 TV CF를 통해 연예계에 입문했다. 당시 걸그룹 주얼리스의 댄서로 '깜짝' 활동한 이색 전력이 있다.

이후 진세연은 한 광고 촬영 현장에서 현 재의 매니저 눈에 띄어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연기에 있어 톨 모델로 한결같이 꼽는 선배는 하지원. 감정 연기에 능하고 캐릭터가 실존하는 느낌을 받아서다. 앞으로는 캐디형 인간 말고 철부지 같은 역할도 해보는 게 그의 꿈이다. /연향뉴스



재희, 알고보니 돌 지난 아이 아빠

배우 재희(32·본명 이현규)가 결혼을 했으며 돌 지난 아들도 둔 것으로 밝혀졌다. 재희의 소속사는 23일 "재희가 한 여성과 결혼 생활 중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얼마전 돌이 지난 아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아직 혼인신고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월간 여성지는 11월호에서 미혼으로 알려진 재희가 사실혼과 다름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돌 지난 아들을 뒀다고 보도했다.

여성지에 따르면 재희의 아내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희와 이 여성은 오랜 기간 교제해 왔으며 현재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MBC 드라마 '산'으로 데뷔한 재희는 드라마 '패결혼' 영화 '빈집' '싸움의 기술'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MBC 주말극 '메이퀸'에서 여주인공 해주(한지혜 분)의 첫사랑 장희를 연기하고 있다. /연향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4일(음 9월 10일 戊午)

子 36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우하라. 48년생 고목회춘의 기쁨이 크다. 60년생 작은 것에 어두워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72년생 과욕하면 절망이 따르느니라. 84년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66, 54	午 42년생 무난하게 진행되어 안정을 찾게 된다. 54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선에 빠진다. 66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일관된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 78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0
丑 37년생 밀거름이 되리라. 49년생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어야겠다. 61년생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73년생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85년생 자신을 이기는 자가 진정한 강자이리라. 행운의 숫자 : 78, 62	未 43년생 원칙을 중시해야만 체계가 설 수 있느니라. 55년생 관용으로써 포용하는 편이 낫다. 67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79년생 공허한 명분 보다는 실리를 추구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30, 05
寅 38년생 늦었으니 살기하기 전에 서둘러라. 50년생 사소한 일일 망정 세심한 배려를 해야겠다. 62년생 큰 문제는 없으나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다. 74년생 감정을 조절하면서 타인 관계에 매진하라. 행운의 숫자 : 38, 95	申 44년생 규칙적인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56년생 정면을 직시해야 충돌을 모면할 수 있다. 68년생 갈만 보려하지 말고 속 내용을 파악해야 하느니라. 80년생 아주 쉬운 일이나 가볍게 일해라. 행운의 숫자 : 14, 34
卯 39년생 비슷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51년생 시작은 좋지만 마무리가 어렵다. 63년생 타인에 대한 배려는 보류하고 자신의 일부부터 처리하라. 75년생 기회가 왔으니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91, 86	酉 45년생 불협화음이 예상되나 길사로 전환될 수 있다. 57년생 과거를 묻지 말고 대의를 도모하라. 69년생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발언하지 않는 것이 좋다. 81년생 성공을 이끄는 결정적인 열쇠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8, 22
辰 40년생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모르니 체제를 잘 하라. 52년생 양보하지 않으면 서로가 손재를 보게 된다. 64년생 다름과 개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76년생 인맥으로 인한 인연이 할로로 열여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99	戌 46년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 결과를 기다려라. 58년생 의도대로 실행한다면 무난하리라. 70년생 자연스럽게 처리해야 성사된다. 82년생 기하급수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생산적 관계가 된다. 행운의 숫자 : 42, 46
巳 41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목적을 달성하게 해 준다. 53년생 선의의 경쟁은 자생력을 키워 주리라. 65년생 헛수고 일 수 있다. 77년생 객관성을 보였을 때 상대가 인정해 주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0, 70	亥 47년생 유력한 이와 상담하면 덕을 볼 수 있다. 59년생 불안전하더라도 버리지 말고 고치도록 노력해 보자. 71년생 근면과 성실은 복록의 원천이리라. 83년생 남자를 놓친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4, 8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6:00 극한직업	우리 아이 자기 표현력 키우기 2	14:45 영어유치원 오 가버리바
06:30 성공 인생 후반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10 고양이 파피
07:00 척척폭죽 처형된	〈김기영의 먹으면 속이 편한 밥상 - 리스스로켓과 오이피클〉	15:35 척척폭죽 처형된
07:30 꼬마 펠리 친구	11:20 세계테마기행	-00:00 똥똥 유치원 1~3
07:45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16:30 클로이의 오솔웃장(재)
08:00 똥똥 유치원 1~3	12:10 기획특강	16:45 춤추는 곰 공아재
08:30 똥똥똥 뽀로로	(지금, 섹카쿠와 쿠릴에서는)	17:00 방구대장 뽀로로(재)
08:45 춤추는 곰 공아	13:00 EBS 다크프라이	17:10 디보와 노래해오(재)
09:00 방구대장 뽀로로	〈극한의 땅 3부 - 히말라야, 벵골 골의 삶〉	17:15 꼬마버스 타요(재)
09:10 디보와 노래해오	14:00 지식채널e	17:30 달려라 카카재
09:15 뽀로로 뽀로로	14:05 함께하는 한국어	17:45 똥똥똥 뽀로로(재)
09:30 달려라 카카	14:35 배움너머	18:00 생방송 특목 보너스 1~4
09:40 클로이의 오솔웃장		18:50 군
10:00 부모		19:05 마텔도사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4 대비수능 스티트	10:00 2012수능완성 <김지은의 경제지리>	07:00 환경 TESAT 대비 강좌	〈사회 3-2〉
00:50 <김철환의 국어 B형>	10:50 <장인수의 물리II>	07:30 EBSe 생활영어	15:50 <사회 4-2〉
01:40 <윤연주의 영어 B형>	11:40 <이희나의 화학II>	08:00 매경 TEST 시험 대비 강좌	16:20 <사회 5-2〉
02:30 <박정호의 물리II>	12: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재)	08:30 실용수학능력검정 시험대비강좌	16:50 <사회 6-2〉
03:20 <윤정환의 외국어>	13:00 2012수능완성 <송기택의 윤리>	09:10 EBS TV 중 1 2학기	〈영어> 17:20 초중개념잡기 <국어>
03:20 <이병희의 지구과학II>(1)	14:00 <문병일의 경제>	09:50 <과학>	18:00 중학개념 끝장내기 <과학>
04:10 <이병희의 지구과학II>(2)	15:00 <윤희석의 사회문화>	10:30 EBSTV 중 2 2학기	〈영어> 18:40 <국어>
05:00 <김현준의 화학II>(1)	16:00 <권주희의 생물 I>	11:10 <과학>	19:20 <영어>
05:50 <김현준의 화학II>(2)	17:00 <박남정의 지구과학 I>	11:50 EBSTV 중 3 2학기	〈영어> 20:00 <수학>
06:40 2012 탐스런 <강승희의 윤리와 사상>	18:00 <박숙녀의 적분과 통계>	12:30 <사회>	20:40 <역사>
07:30 <최선숙의 지구과학 I>	19:00 <이창주의 수학II>	13:20 친절한 수학 익힘책 5-2	21:20 중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08:20 2014 대비 수능스틸트	20:00 <윤해정의 언어>	13:50 중학예비반 <수학>	22:40 중3퍼펙트 체크업 <역사3-2>(재)
09:10 <정현경의 수학II>	21:00 <윤연주의 외국어 영역>	14:30 중학예비반 <영어>	23:20 중3퍼펙트 체크업 <과학1-2>(재)
09:10 <박숙녀의 적분과 통계>	22:00 <이희명의 세계사>	15:10 사회가 속속!	24:00 EBSe 생활영어(재)
	23:00 선생님이 달려왔어요	15:20 초등 내공남남	24:30 실용수학능력검정 시험대비강좌(재)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I made it myself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膠漆之交(교칠지교) 아교 교, 옷칠, 갈 지, 사골 교
A : Your dress is very beautiful. B : Thank you. I made it myself. A : I didn't know you could sew. B : It's the first thing I've made. A : You did a good job.	교칠지교(膠漆之交)란 '아교와 옷칠처럼 끈끈한 사귀'이란 뜻으로, 아주 친밀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당(唐)나라의 백낙천(白樂天)과 원미지(元微之)는 가까운 벗이자 과거에 함께 급제한 동료였다. 백성의 분노와 고통과 번뇌를 따를 사를 함께 지었는데, 훗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시골로 귀향되었다. 백낙천이 원미지에 쓴 편지에 의하면, "4월 10일 밤에 낙천은 아된다. 미지여, 미지여. 그대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이미 3년이 지났네. 그대의 편지를 받지 못한다고 2년이 되었고 하네. 인생이란 길지 않은 길세.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하니 말일세. 하물며 아교와 옷칠 같은 마음으로 북쪽 오랑캐 땅에 몸을 두고 있으니 말일세. 나아가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물러서도 서로 잊을 수 없네.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떨어져 있어, 각자 흰머리가 되려고 하네. 미지여, 미지여. 어찌하리오, 어찌하리오. 실로 하늘이 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어찌하리오!" 하며 벗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A : 입고 계신 옷이 정말 예쁘네요. B : 고마워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A : 전 몰랐습니다. 당신이 재봉질을 할 줄 안다는 것ですよ. B : 이 옷은 제가 처음으로 만든 옷이에요. A : 아주 잘 만들었네요.	[출전] 원미지의 '백씨문집(白氏文集)』
* 제가 처리한 작업이 마음에 드셨어요? = Were you happy with my work? * 일을 잘못 처리하다 = Do a bad job. * 그 사람은 시험을 잘 치렀어요. = He did a good job on his test.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니하오 풍구위
洛陽紙貴 Luòyáng zhǐ guì 낙양의 종이 값이 올리고 싶습니다
洛陽(낙양)의 종이 값이 올랐다(紙貴). 晉代의 左思라는 이가 위촉어의 풍물을 소개한 '三都賦'을 썼는데, 이 책이 인기가 있는지라 너도나도 필사본으로 소장하려고 종이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라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값이 오를 것이고, 그것에 빚대어 낙양의 종이 값이 올랐다는 말이 책이 유명해지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말로 되었습니니다.
중국어 문법책을 하나 썼습니다. '5시간 만에 끝내는 중국어 기초문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5시간 만에 어떻게 중국어 문법을 끝낼 수 있을까? 헌데 제가 강의 하던 딱 5시간 소요됩니다. '낙양지귀'가 될 수 있을까요?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오우 니혼고
うそ ほうべん 嘘も方便ですね。 거짓말도方便이다
A : 彼が嘘なんですか。信じられません。 B : 患者に本当のことを言ったほうが。 A : 先ずは、ただの胃炎だと言ってください。 B : 嘘も方便ですね。分かりました。
A : 그가 암입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B : 환자에게 사실을 말하는 편이. A : 우선은 단순한 위염이라고 말해주세요. B : 거짓말도方便이죠. 알겠습니다.
齋 信じる 암 胃炎 위염 민다 ただの~ 단순한~
<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